

추계 답사
학술 논문 자료집
-경주-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신라의 불교 공인과 이차돈의 순교

이효민 (역사교육과 2학년)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과 이차돈 순교의 역할

1. 신라의 불교 수용

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5년

2. 신라의 불교 공인

- 1) 불교 공인 이전 신라의 사상적 기반
- 2) 사금갑 사건과 왕실의 불교 배척
- 3) 사금갑 사건 이후 왕실의 불교
- 4) 이차돈의 순교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시기는 삼국시대이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 중국의 북조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에 중국의 남조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두 시기를 비교하면 고구려와 백제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시기에 불교를 공인했다. 이에 비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를 수용한 지 약 150여년이 흐른 뒤에야 불교를 공인했다.

150여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신라가 불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5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눌지왕과 비처왕 시기 고구려에서 각각 목호자와 아도화상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모례의 도움으로 신라에 머물렀다는 기록이다. 목호자가 기도를 통해 왕녀를 치료하고, 아도화상과 함께 온 세 사람이 경과 울을 강독하자 신봉하는 자가 생겼다는 기록이 신라가 공인 이전에도 불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럼 신라가 불교를 알고 있음에도 공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왕실과 귀족의 대립이 그 이유이다. 『삼국사기』 기록을 다시 보면 “신하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반대가 많았으므로...”¹⁾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불교는 신하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었다. 전통무교 사상을 고수하던 귀족과 새로운 고등 종교를 통해 귀족과는 차별된 권위를 갖고자 했던 왕실의 대립이 불교 공인의 어려움을 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륜사 창건으로 왕실과 귀족의 대립이 심화한 때 이차돈이 등장하였고 불교 공인의 계기가 되어졌다.

따라서 이차돈의 순교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알기 위해 우선 신라의 불교 수용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왕실과 귀족의 대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신라의 기존 토착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차돈의 순교가 왕실과 귀족의 대립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과 이차돈 순교의 역할

1. 신라의 불교 수용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는 것은 왕실 입장에서든 국가 발전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삼국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²⁾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고자 했던 시기도 부족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신라의 불교 수용은 중요한 문제였다.

신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족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귀족의 사상적 기반이기도 한 토착 신앙보다는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의 종교보다 수준이 높은 고등 종교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불교였다. 신라 왕실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법흥왕에서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것과 진평왕과 왕비의 이름을 석가모니의 부모인 ‘백정’과 ‘마야부인’으로 칭하며 신라 왕실을 석가모니 집안의 환생으로 여겼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왕즉불’ 사상을 통해 신라의 불교 수용은 대체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귀족보

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법흥왕 15년

2)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부족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토착 신앙보다 수준 높은 고등 종교가 필요했다. 불교의 수용은 삼국의 귀족과 일반 백성이 그동안 가져온 가치관 및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는 왕실이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언제 처음 불교를 접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은 사료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신라의 불교 수용 과정은 고구려나 백제와 다르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고, 여러 사료마다 그 시기와 과정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신라의 불교 전래와 수용이 고구려, 백제와 달리 불교를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 불교 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5년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5년에는 신라의 불교 전래와 공인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차돈의 순교가 기술되어 있다.

15년에 불법(佛法)이 비로소 유행하였다. 처음 눌지왕 때에 승려 목호자(墨胡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一善郡)³⁾으로 왔는데, 일선군 사람이 모례(毛禮)가 집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고 편히 머물게 하였다. 이때 양(梁)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香)을 주었다.⁴⁾ 왕과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몰랐으므로 사람을 보내 향을 가지고 다니며 두루 묻게 하였다. 목호자가 이것을 보고 그 이름을 알려주며 말하였다. …중략…

그 무렵 왕녀의 병이 심하였으므로 왕이 목호자에게 향을 피워 빌게 하였더니, 왕녀의 병이 곧 나았다. 왕이 매우 기뻐하여 선물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목호자는 나와서 모례를 찾아가 얻은 물건을 주며, “내가 지금 갈 데가 있어 작별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 곳을 알지 못했다.

비처왕 때에 이르러 아도화상이 시종드는 세 사람과 함께 역시 모례의 집에 왔다. 모습이 목호자와 비슷하였는데, 몇 년간 살다가 아무 병도 없이 죽었다. 그 시종들던 세 사람이 머물러 살면서 경과 율을 강독하였는데, 이따금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⁵⁾

위 내용을 보면 신라 왕실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건 눌지왕 때라 추측할 수 있다. 처음 눌지왕 때 목호자가 고구려에서 내려와 일선군에 머물렀다는 기술을 통해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목호자가 향의 용도를 알려주고, 왕녀를 치료해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기술을 통해서 목호자가 왕녀를 치료하는 계기로 신라 왕실에 불교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비처왕 시기에 아도화상과 함께 들어온 세 사람이 경과 율을 강독하자,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신라의 불교 공인

3)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4) 시기적으로 양나라는 502년부터 558년까지 존속하였고, 눌지왕은 진과 송나라 시대에 살았으므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신라와 양나라 사이에 사신이 오고 간 기사는 521년(법흥왕 8년)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연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삼국유사 기사에서 주석을 통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법흥왕 15년.

6)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신라의 불교 공인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귀족 지배계층의 반대가 불교 공인에 큰 걸림돌이었다. 그들은 왜 불교 공인을 반대한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 불교 공인 이전 신라의 사상적 기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1) 불교 공인 이전 신라의 사상적 기반

불교를 공인하기 이전 신라에는 전통 신앙이 존재하였다. 이 전통 신앙은 신라를 비롯한 삼국에 공통으로 있던 전통 신앙이다. 그것을 전통무교라고 한다. 전통무교 사상은 자신의 직계 조상을 천신으로 꾸며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지배계층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왕실만이 천신의 자손인 것은 아니었다. 새로 6촌의 소국과 신라가 흡수한 주변 소국들은 모두 자신들의 혈연을 기반으로 한 조상신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국가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 형성의 주도 세력은 건국 신화를 창조하고,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신과 지신을 직계 조상으로 꾸며 스스로 천지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천강지응족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국왕과 최고 귀족들은 같은 천강지응족으로서 차별적 존재라기보다는 대등한 존재로 보았다.⁷⁾

이러한 신라의 전통무교 사상의 모습은 삼국사기 기록에도 나타난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거의 시조묘에 제례하거나, 또 소지마립간 9년에는 시조묘 외에도 신궁⁸⁾을 설치하여 시조묘와 신궁에 모두 제사하거나 배알하는 등의 기록이 있다.

2) 사금갑 사건과 왕실의 불교 배척

사금갑 사건은 소지마립간부터 법흥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신라 왕실이 불교를 배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귀족 지배계층의 사상적 배경이 전통무교 사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다. ‘사금갑’조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제21대 비처왕<또는 소지왕이라고도 한다> 즉위 10년 무진에 천천정에 행차하였는데,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을 하며 이르기를,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말을 탄 무사에게 까마귀를 쫓도록 명하였다. 그 무사가 남쪽 피촌에 이르니, 돼지 2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어 이를 한참 동안 보다가 문득 까마귀가 간 곳을 잊어 버려 길가를 배회하고 있었다. 이때 늙은이가 연못 속에서 나와 글을 바쳤는데 겉면에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어 보지 않으면 한 사람만 죽을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무사가 돌아와 이것을 바치니 왕이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열어 보지 않고 단지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다. 일관이 “두 사람은 서민이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이 그러하다고 여겨 열어 보니 글에 이르기를, ‘거문고 상자를 활로 찌라’라고 하였다. 왕이 궁궐에 들어가 거문고 상자를 보고 (활을) 쏘니, (거기에 서는) 곧 내전의 분수승과 궁주가 몰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다.⁹⁾

7) 서의식, (2019),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1>, 가람기획, p.368.

8) 신궁의 제사 대상에 대해서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김씨 시조, 천신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시조 탄강지처인 나을에 세웠다는 점에서 신라 건국 시조인 혁거세를 제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사금갑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비처왕(또는 소지왕)이 까마귀와 쥐의 도움으로 분수승과 궁주를 처벌하고 죽음을 피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야기 자체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늙은이가 준 글 겹면에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 어 보지 않으면 한 사람만 죽을 것이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통해 여기서 두 사람은 분수승과 궁주가 되고 한 사람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거문고 상자를 활로 찌라’라고 쓰여있는 것은 왕이 글을 열어 보지 않았다면 두 사람 즉 분수승과 궁주가 아닌 한 사람 왕이 죽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최종석 교수는 「신라 불교수용의 배경과 공인에 대한 고찰」에서 “소지마립간이 왕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설치한 신궁이 전통무교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의도로 비추어진다”¹⁰⁾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반발로 귀족들이 연합하여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한 불교와 신궁의 연합을 이유로 하여 승려와 궁주를 죽임으로써 국왕 또는 왕실의 전통무교 장악 시도를 저지한 것”¹¹⁾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사금갑’ 사건은 귀족 지배계층이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해주는 전통무교를 국왕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다.

3) 사금갑 사건 이후 왕실의 불교

사금갑 사건 이후 신라 왕실은 한 세대 이상이 지나도록 불교를 배척했다. 사금갑 사건으로 불교를 배척했던 소지왕과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사이에는 지증왕이 존재한다. 법흥왕은 즉위 초부터 불교를 다시 수용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법흥왕은 “즉위하면서부터 창생을 위하여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만들려고 염원해왔다고”¹²⁾하였다. 법흥왕이 불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버지 지증왕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곧 지증왕대 왕실이 불교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한다.¹³⁾

지증왕의 어머니는 눌지마립간의 딸 조생부인 김씨이다. 눌지왕 때 승려 목호자가 왕녀를 치료하면서 불교가 신라 왕실에 전해졌다. 이 때 왕녀가 지증왕의 어머니인 조생부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승려의 치병 활동 및 눌지왕의 불교 수용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불교를 가깝게 보고 자란 조생부인은 불교를 신봉했을 가능성이 크며, 지증왕도 어머니 조생부인의 영향을 받아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¹⁴⁾ 법흥왕은 아버지 지증왕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4) 이차돈의 순교

불교 수용을 둘러싼 귀족과 왕실의 대립은 법흥왕 때 다시 시작되었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려고 하자 귀족들은 반발하였다. 이차돈 순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흥륜사 창건에 있다. 흥륜사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불교 사찰인데, 『삼국유사』 권3의 ‘아도기라’조에 의하면 이곳에 원래 천경림이 자리하였다고 한다. 천경림¹⁵⁾은 전통의

9) 『三國遺事』 권1, 紀異1, 射琴匣

10) 최종석, (2017). <신라 불교수용의 배경과 공인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p.176

11) 최종석, 앞의 논문(2017), p.176

12) 『三國遺事』 권3, 興法3, 原宗興法 厭懼滅身

13) 박미선, (2022). <신라 지증왕계의 등장과 불교 공인의 정치사회적 배경>, 사학연구, p.9

14) 박미선, 앞의 논문(2022), p.20

15) 천경림이 정확히 어떤 성스러운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경(天鏡)이라는 말이 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가까이에 있는 신라의 도성도 월성(月城), 반월성(半月城)이라고 하는 등을 보면 달과 관련된 성스러운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달은 풍요와 관련이 있는 천체이다. 김영준, (2020). <흥륜사 탑돌이의 양상과 배경>, 민속학연구, (46), 35-56.

성지로 불교 공인에 반대하던 귀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통 성지를 없애고 사찰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법흥왕은 토착 신앙 대신 불교라는 새로운 이념에 따라 통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던 듯하고, 반대로 귀족들은 토착 신앙에 기대어 법흥왕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국면에 이차돈이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아래는 『삼국사기』 속 이차돈의 순교이다.

(왕의)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혹은 처도라고도 하였다.)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본래 도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인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차돈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약 도가 행해질 수 있다면, 신은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여러 신하들을 불러들여 물으니 모두 다 말하기를, “지금 승려들을 보면, 박박 깎은 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고, 말하는 논리가 기이하고 괴상하여 뿔뿔한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승려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들은 비록 중죄를 받더라도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차돈이 홀로 말하기를,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특별한 사람이 있는 연후에야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불교가 심오하다고 하니, 아마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말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다. 너만 홀로 다른 말을 하니, 양쪽을 다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관리가 장차 (이차돈의) 목을 베려고 하니, 이차돈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장에 나아가니, 부처님께서 만약神通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목을 베자, 피가 (목이) 잘린 곳에서 솟구쳤는데 (피의) 색깔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 험뜯지 않았다.¹⁶⁾

위에 내용에 의하면, 이차돈은 신하 중 유일하게 법흥왕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족은 승려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그들의 논리는 뿔뿔하지 않다며 불교 수용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귀족들의 입장에 이차돈은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홀로 불교 공인을 위해 싸웠으며, 이차돈은 “바라건대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라면서 “만약 도가 행해질 수 있다면, 신은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통해 자신의 희생으로 귀족의 반대를 꺾고 불교를 공식화하며 왕과 귀족의 대립을 끝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법흥왕의 불교 공인정책은 실패했으나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결국 불교 공인을 성공했다. 이차돈의 순교 당시 일어난 신비한 일은 “다시는 불교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 험뜯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보아 당시 여러 사람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지금까지 신라의 불교 수용과 공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이차돈의 순교를 살펴보았다. 신라는 불교 수용에 대한 여러 기록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연대를 측정하고 확답을 내릴만

16)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서 동일하게 언급되는 기록을 토대로 신라 왕실에 처음 불교가 들어온 것이 눌지마립간 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불교를 접한 신라 왕실은 이후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소지마립간 10년 사금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다. 사금갑 사건으로 불교를 배척하던 소지왕과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사이에는 지증왕이 있었고, 눌지마립간의 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지증왕에 의해 불교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를 쉽게 공인할 수는 없었다. 법흥왕 때 이르러 불교는 다시 왕실과 귀족의 대립점이 되었고, 흥륜사 창건을 두고 더욱 심화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이차돈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법흥왕을 도와 불교가 공인될 기회를 만들었다. 불교를 반대하던 귀족들도 이차돈의 순교에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것만이 귀족의 마음을 돌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차돈의 순교는 귀족들과의 싸움에서 지쳐가던 법흥왕에게 큰 도움이 되어 불교를 공인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 후에 흥륜사 창건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이차돈의 순교는 전통무교와 불교, 귀족과 왕실의 타협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차돈의 순교 이후 불교 공인정책 실패로 중단된 흥륜사 공사가 재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흥륜사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천경림에서 조달했다는 것이다. 천경림을 훼손하면서 조달한 것은 이차돈의 죽음이 그만큼 신라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증거이다.

이차돈의 불교 공인을 위한 희생은 신라의 첫 사찰인 흥륜사를 재건할 기회를 마련하고, 진흥왕 대에 승려가 되는 것¹⁷⁾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라가 불교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三月, 許人出家爲僧尼奉佛.

* 참고문헌

1. 서적 및 논문

- 1) 『三國遺事』
- 2) 『三國史記』
- 3) 서의식, (2019).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1>, 가람기획.
- 4) 최종석, (2017). <신라 불교수용의 배경과 공인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167-196.
- 5) 박미선, (2022). <신라 지증왕계의 등장과 불교 공인의 정치사회적 배경>, 사학연구, 5-38.
- 6) 김영준, (2020). <흥륜사 탑돌이의 양상과 배경>, 민속학연구, (46), 35-56.

2. 사이트

- 1)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석굴암의 가치를 찾아

- 역사, 구조를 중심으로 -

이도영 (역사교육과 1학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석굴암의 역사, 변천 과정
2. 석굴암의 구조
3. 석굴암 보존 방법

III. 결 론

I. 서론

석굴암은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사찰로,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金大城, 700~774)이 현생의 부모에 대한 효를 위해 석불사 축조를 시작하였고, 그가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신라 혜공왕 때 국가가 완공한 것이라 전하여 온다.

석굴암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본존불상¹⁸⁾을 중심으로 정교한 계산 속에 배치된 불상들은 완벽한 불국토¹⁹⁾를 연출시킨다. 종교성과 예술성에서 빛을 내는 작품이자, 전세계의 종교 예술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걸작으로 전하여 온다.

본 연구자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전공 수업 때 진행했던 문화재 소개 활동에서 석굴암에 대해 조사하면서, 석굴암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졌고, 석굴암의 비밀과 석굴암의 가치가 더욱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석굴암의 역사와 변천과정,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서 석굴암의 보존의 관한 방법과 앞으로의 방안을 강구한다.

II. 본론

1. 석굴암의 역사

1) 창건(751) ~ 제 1차(1913~15)

석굴암은 본래 석불사라는 이름으로 신라 경덕왕 10년(751), 당시 대상(大相)이었던 김대성(金大城, 700~774) 이 전세의 부모를 위하여 축조하기 시작하였고, 신림(神琳)과 표훈(表訓)을 청하여 불국사와 석불사에 머무르게 하며 ²⁰⁾ 김대성이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신라 혜공왕 10년(774), 국가가 완공하였다고 전해진다.

석불사 창건 이후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는 유지와 관리가 무리 없이 되었겠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송유역불정책의 영향으로 등한시 되었을 경향이 높다. 기록이 계속해서 없다가 정시한²¹⁾의 「산중일기」를 통해서 연혁이 이어졌다. 1688년 5월 15일, 정시한이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 전실과 후실의 석상들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입구의 홍예, 본존상과 좌대석, 주벽의 여러 조각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까지 석굴 상태에 이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들이 살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석굴의 보존상황이 온전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 숙종 29년(1703)에 종열(從悅)이 석굴암을 중수하고, 굴 앞의 돌계단을 쌓았으며, 영조 34년(1758)에 대겸(大謙)이 중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²²⁾

조선 말기에 와서 석굴암은 울산병사 조예상(趙禮相)에 의하여 크게 중수되었다고 한다. 1962년에 시작된 대수리 때에 석굴암 부근의 노인들은 이 석굴을 가리켜 ‘조가

18) 으뜸가는 부처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불’을 이르는 말.

19) 부처가 계시는 국토 또는 부처가 교화하는 국토라는 뜻. 신라의 불교도들은 깨달음의 세속적 가치인 자유, 평등, 복지가 실현된 사회의 건설을 염원했고, 그러한 이상사회를 불국토라고 생각함.

20) 일연,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신문왕대(大城孝二世父母神文王代)」 중

21)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이자 서예가이다. 희빈 장씨의 강호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는 등 당파를 초월하여 자기 소신을 밝혔다. 「임오록」, 「만록」, 「산중일기」를 저술하였다.

22) 동은,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절(趙家寺)’이라 지칭하였고,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향화(香火)와 공양(供養)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 바도 있다. 또한, 1891년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해 석굴암이 크게 중수되었다고 한다. 손영기가 지은 <석굴중수상동문>에서 중수의 상황을 추상적, 함축적으로 표현해놓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1891년 수리된 것을 마지막으로 계속 방치되다가 1907년경 우편배달부가 일본인에게 석실이 있음을 알렸고, 일제가 석굴암을 재발견하게 된다. 일제는 당시 석굴을 지하동굴에서 발굴한 듯 과장하여 선전하였다. 발견했을 당시 “본존불의 코가 깨졌고 연화대 또한 심하게 갈라져 파손되었으며, 천장의 3분의 1이 이미 추락하여 구멍이 생겨 그 구멍에서 흠이 들어오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불상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보존 상태는 불량하였다. 1910년 일제는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부로 운반하려고 했으나 경술국치로 일제가 조선을 점거하자 굳이 석굴을 해체하여 반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또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 계획은 좌절되었다.

2) 석굴암 수리 -1 / 제1차(1913~15) ~ 제3차(1920~23)

1912년,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가 석굴암을 방문하였고, 총독부는 석굴암 중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의 중수는 세 차례에 걸쳐 행해졌는데, 제1차는 1913~1915년, 제2차는 1917년, 제3차는 1920~1923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1913년 해체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

제 1차 수리공사는 거의 해체하는 복원공사였다. 1912년 6월 25일자의 현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석굴암은 황폐화되어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천장의 3분의 1이 이미 추락해 구멍이 생기고, 구멍으로부터 흠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구멍을 방치할 경우 본존불상까지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1913년 4월, 구니에다 히로시가 현지 조사를 하고 수리계획을 세워 1차 수리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수리공사의 주 내용은 비계목²³⁾과 형틀²⁴⁾을 사용해 천장 덮개돌을 받치고, 다른 모든 돌을 해체 보수하여 재조립하면서, 돌 뒤에 두께 3척의 콘크리트를 쳐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

23)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는 데 쓰이는 가늘고 긴 통나무

24) 형태를 잡아주는 틀

보하는 것이었다.²⁵⁾ 이 때 전실 부분에 대해서 천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석상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철근 콘크리트로 덮을 것을 제안했었다. 1913년 10월에 착공된 제 1차 수리공사는 석굴 천장 부분에 목제 가구를 설치하여 해체공사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1914년에 본공사에 들어가 석굴을 완전히 해체하고, 콘크리트를 씌웠던 수리공사는 1915년 9월 15일에 끝났으며, 총공사비는 22,724원 54전이였다.²⁶⁾

조선총독부는 제 1차 수리공사를 통해 ‘석굴암의 근대’를 창출했고, 이를 식민지 조선의 표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의 건축 복원과 보존 학문은 초기 발전 단계였기 때문에 보존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다. 건식 공법²⁷⁾으로 지어졌던 석굴암을 습식 공법²⁸⁾으로 다시 지음으로 인해, 내부와 외부 사이의 공기 유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결로 현상²⁹⁾이 심하게 발생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복원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로 인해 심각한 결로 현상이 석굴암 내부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결로에 의해 발생한 이끼와 오탁 및 이를 제거하는데 사용한 증기 세척 작업은 조각 석상 면의 풍화를 촉진했다.

제 2차 수리공사는 1917년 7월, 누수의 양이 많아져 방지를 위해 시작되었다. 6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진행된 공사는 우선 봉토를 제거한 후 콘크리트로 된 돔(dome) 표면에 석회 모르타르와 점토층(粘土層)을 마련하고, 원형돔의 외부에 방사선상의 암하수(暗下水)를 설치한 뒤 다시 그 위에 흙을 덮고 잔디를 까는 것이었다. 1917년 6월부터 약 1개월간에 걸쳐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석상 면에 흐르는 물이 결로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하의 물이 새어 들어와 발생한 누수 현상으로 오인하여 엉뚱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3) 석굴암 수리 - 2 / 제 3차(1920~23) ~ 한국(1961~64)

1920년 9월, 제 3차 수리공사는 최초의 중수과정에서 미술품을 손상시켰다는 것과 옛 주위의 경관을 파괴했다는 점 때문에 시행되었다. 공사의 주요 내용은 방수층의 설치와 지하수 처리의 변경 및 입구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먼저 누수 장소를 찾기 위해 봉토를 제거하고, 주실 외부에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사용해 만든 석축의 일부를 제거했다. 이 때 천장 일부의 콘크리트 이음 부분에서 균열된 곳을 발견했는데, 균열된 곳으로 침수된 누수가 다시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수한 후,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6cm 두께의 모르타르로 고르게 덮은 다음, 방수 아스팔트로 층을 만들고, 그 위에 봉토를 덮고 잔디를 다시 입혔다. 지하수 처리는 제 1차 공사 때 연관을 사용했던 방식과 다르게 지하 용출수가 주실 바깥에서 외주를 돌아 흐르도록 암석을 파서 석조로 배수로를 새로 만들었다.

25)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 16쪽을 참조.

26) 현재 금액으로 40억원 추정.

27) 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축하는 공법

28) 콘크리트나 미장 재료 등 시공을 위해 물이 들어가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하는 공법.

29) 포화 수증기압보다 현재의 수증기압이 높아질 때 물체 표면에 물이 응결되어 맺히는 현상

1920년 9월 3일 기공하여 1923년까지 4년간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공사비 1만 6,985원이 소요되었다. 공사가 끝난 후에, 여름철 습기로 굴 내의 벽면에 결로 현상이 생기고, 석굴 조각의 표면에는 이끼가 다시 발생되면 심각한 훼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일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증기보일러를 설치하여 1934년, 세척 작업을 실시, 조각 표면에 생긴 이끼와 오탁을 제거했다. 증기를 분사하는 세척은 화강석 표면을 보존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이었다.

3) 석굴암 수리 - 3 / 한국 수리공사(1961~64) 이후

광복 이후 석굴암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에 있었다. 일제의 의해 빛어진 모순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퇴락은 더욱 심해져 갔다. 한국정부는 3년간에 걸쳐서 석굴 수리의 대책을 논의한 끝에, 1961년 9월 보수공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1963년 석굴암에 대한 조사, 예비공사를 진행했으며, 1964년에 본공사를 마무리했다. 1963년에 시행된 조사의 목적은 석굴을 계속 퇴락시키고 있는 기상·누수 등의 자연현상과 불상면의 심한 풍화작용에 대한 조사와 일제시대에 잘못된 판단에서 재조직원 굴 자체의 구조 및 불상들의 위치배정에 대한 검토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수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이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누수로 지목했다. 광복 이후 한국정부의 조사에서도 풍화작용의 근본적 원인을 누수로 들었다. 또한, 습윤과 토사를 운반하는 강풍에 노출된 건축 환경도 풍화작용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당시 석굴 내의 석상 표면이 젖는 현상은 누수가 아닌 결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³⁰⁾ 그러나, 당시 수리공사를 주관했던 책임자들은 과학적 분석 능력과 기술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풍화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³¹⁾ 습기를 피하기 위하여 굴 내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고, 그에 따라 굴을 외기와 차단시키고, 인위적으로 석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923년에 시공된 콘크리트 위에 돔 형 콘크리트를 신규로 피복하는 ‘이중 돔’ 구조로 타설하고, 목조와죽의 전실을 설치하여 외부의 변화 및 영향을 배제시켰고, 지하수를 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였으며, 콘크리트로 덮은 돔을 따라 흐르는 물도 역시 이 배수구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재보수를 하였지만, 습기로 인해 내부에 이끼가 더 생겨났고, 결국에는 석굴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그 안에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있다.

2. 석굴암의 구조

석굴암 석굴은 방형 공간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로 나뉘어져 있다. 전실에 들어서면 본존불을 바로 볼 수 있다. 전실은 좌우로 4구씩 팔부신장상, 통로 좌우 입구에는 금강역사상을 조각되어있고, 주실 입구에는 좌우로 8각의 돌기둥, 안쪽에는 본존불이 중심에서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벽면에는 입구에서부터 천부상 2구, 보살상 2

30)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

31) 윤재신, 석굴암, 세 번의 수리 공사와 세 개의 공간 개념 -석굴암 건축과 안팎의 공간 구분을 중심으로-

구, 나한상 10구가 채워지고, 본존불 뒷면 벽에는 석굴 안에서 가장 정교하게 조각된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위치해있다.

석굴의 축조 방법은 돌들을 실제로 베짜듯이 서로 짜여지게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즉 좌우에서 돌들이 이어질 때에는 서로 버그러지지 않도록 양쪽 돌에 아령 모양의 홈을 절반씩 파서 납을 녹여 부었으며, 아래위로 돌들을 쌓아 올릴 때에도 돌들이 서로 물려 있도록 아랫돌 또는 윗돌에 가벼운 홈을 파 놓고 있고, 이음새가 아래위로 서로 한 주로 이어지는 일이 없게 하였다.

천장의 구조는 밑의 돌이 빠져 나가거나 또는 무너지지 않는다면 위의 돌이 먼저 빠져 나가거나 무너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석굴의 바닥은 큰 암반이며 위에는 큰 초석들을 깔았고, 지상의 제일 밑부분에는 척(89.1cm) 높이의 불상판석, 그 위에는 1.5척(45cm) 높이의 돌림돌, 그 위에는 다시 4.5척(약 1.48m) 높이의 감실이 있으며 그 위에는 반구형 천장이 있다. 천장의 현재 높이는 29.2척(약 8.7m) 이지만 그것은 약간 주저앉은 높이일 것이므로 원래 높이는 30척(8.91m) 이었을 것이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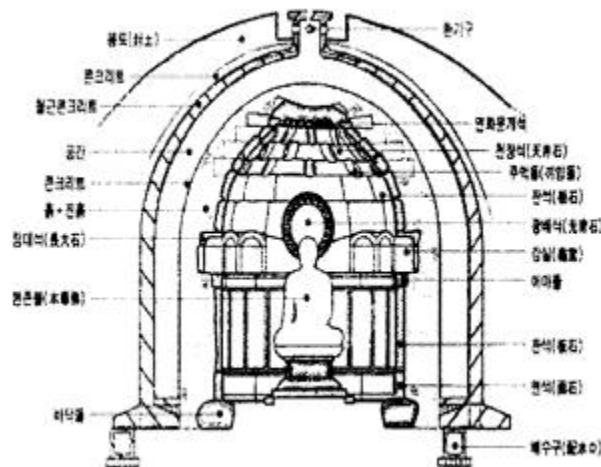


그림 2 석굴의 단면도

석굴의 원형은 원래 개방구조이었으며, 출입구의 아치형 천장 바로 위의 제1단 천장석의 자리에 광창³³⁾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광창이 존재했다는 것은 1960년대 말부터 제기가 되었다. 석굴암 보수공사 후 남아있는 석조 부재물 중에 일정한 간격으로 삼각한 구멍이 뚫린 아치형 석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광창의 부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창 석굴 벽의 두께나 창 크기로 보았을 때, 원래부터 광창이 없었을 수도 있다. 광창이 설치된 인도나 중국 석굴의 경우, 석굴의 전벽의 폭이 1m 전후인 반면 석굴암은 약 2.6m로 매우 두텁고, 광창의 부재로 추정되었던 석재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하고 있어서 광창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굴암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굴의 내부를 살펴보면, 같은 석재를 사용해 석

32) 임미경, (2004), <석굴암 석굴의 과학적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33)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둔 창

굴을 구성하고 있지만, 석재마다 질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석굴암 보존 방법

석굴암의 보존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원인은 일제의 의해 진행된 잘못된 보수 공사 때문이다. 보수 과정에서 석굴암의 구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덮어버렸다. 콘크리트는 방수에는 탁월해도 방습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 내부의 공기 흐름이 차단되었고, 석굴 곳곳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였다. 결로 현상으로 인해 습기가 노출되면서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과 칼슘이 석굴암을 구성하고 있는 화강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석굴암의 훼손 상태는 더욱 더 심각해졌다. 또한, 석굴암의 냉각 기능을 하는 지하 샘물을 습기의 원인으로 오인하여 배수시키면서 결로 현상이 더욱 더 심각해졌다.

일제는 조각물과 불상 표면에 생긴 오염을 세척하기 위해 증기압력을 석면에 가했는데, 거친 처리로 보존불을 비롯한 많은 조각들이 마모되면서 석굴의 예술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었다.

광복 이후, 1963년 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석굴 전면을 밀폐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서 석굴의 상태는 심각해졌다. 또 다시 4m 정도의 두터운 봉토를 씌우고, 두께 2m 정도의 콘크리트를 시공하면서 습기가 더욱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공사가 끝나자마자 석굴 표면에는 하루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흘러내렸고, 당시 정부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인공적인 제습장치의 시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치의 고장이나 정전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릴 것이고, 장치의 소음과 진동으로 미세한 훼손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수 공사로 인한 구조 때문에 여름철에 석굴 내의 온도는 항상 외부 온도보다 크게 낮으며 결로현상으로 벽면에는 물이 심하게 흘러내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강력한 냉각장치를 설치하여 공기를 건조시켜 굴 내에 보내고 있다. 또한, 과학적 보존을 위해 전실 앞부분에 유리로 차단막을 설치하여 차단막 밖에서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석굴암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습기 조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완전한 회복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원형 복구 공사에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고,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설계도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시설은 보존하면서 석굴암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먼저, 원형 복원을 위한 정밀한 계획과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석굴암은 1996년부터 매년 2~3회에 걸쳐 구조성능조사, 변위조사, 압축강도조사 등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해 오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원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 정비할 계획만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14년도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위해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보존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청은 지난 3년 동안 석굴암 보존관리에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홍보 예산도 1000만 원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화재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최하위권 보

존등급인 D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을 보존하고 원형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계획을 세워 조사를 착수해야할 것이다.

둘째, 가상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훼손되었던 문화재들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기술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사라졌던 조선관청 ‘군기시’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당시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 201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요청으로 석굴암을 디지털로 복원했었다. 1년 간 전시를 위해 복원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정식으로 디지털 복원을 해서 전시하고 있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석굴암 본존불을 전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석굴암 석굴의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디지털로 원형을 복원한다면 석굴암의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더욱 더 실감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석굴 근처에 보수공사 시에 교체된 구부재들과 기타 주변 석물을 노출되어 있는데 이 석물들을 보존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석굴암은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인공석굴 구조에 본존불상을 중심으로 정교한 계산 속에 배치된 아름다운 불상들이 완벽한 불국토를 연출하는 사찰이다. 또한 종교성과 예술성에서 우리 선조가 남긴 아름답고 전세계의 종교예술사에서도 빛나는 유산이다.

이번 글에서는 석굴암의 역사와 구조, 석굴암 보존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석굴암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석굴암의 변천과정, 보존상태, 건축방식,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할 지도 고민할 수 있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윤재신, 석굴암, 세 번의 수리 공사와 세 개의 공간 개념 - 석굴암 건축과 안팎의 공간 구분을 중심으로

임미경, 석굴암 석굴의 과학적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우동선, 배기형의 「경주 석굴암 보수공사 설계도」(1961)에 관한 고찰
문화재관리국,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 문교부 문화재관리국, 1967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석굴암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 1974

동은,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일연,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세부모신문왕대(大城孝二世父母神文王代)」 중

신라 화랑도와 역사적 의의

박영은 (역사교육과 2학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 1) 화랑도의 기원과 성립
- 2) 화랑도의 조직
- 3) 화랑도의 교육 및 활동
 - (1) 화랑도의 이념 - 세속오계(世俗五戒)
- 4) 화랑도의 변천 및 역사적 의의

III. 결 론

I. 서론

과거 신라에는 지도자인 화랑(花郎)과 그들을 따르는 낭도(郎徒)로 구성된 화랑도(花郎徒)라는 청소년 단체가 존재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곱게 단장시키고 화랑이라 부르고 받들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나라 영호징의 『신라국기(新羅國記)』에서 역시 ‘귀인의 자제로 아름다운 사람을 가려 뽑아서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화랑이라 이름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여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화랑의 글자 뜻은 ‘꽃같이 아름다운 사내’이다. 그러나 과연 화랑이 단순히 미모가 출중한 사람들만을 모아둔 것에 불과했을까? 6-7세기 당시 삼국은 한강 유역을 두고 항쟁이 격화되며 통일 전쟁에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했다. 화랑도는 신라의 삼국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다. 실제로 대가야 정복 당시 활약을 했던 사다함과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한 관창과 반굴, 삼국통일을 이끌어 낸 김유신 역시 화랑 출신이다. 이들은 어떠한 단체이기에 이토록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이 글에서는 화랑도의 기원과 함께 그들의 조직과 교육 방법을 알아봄과 동시에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화랑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화랑도의 기원과 성립

화랑의 전신으로는 576년(진흥왕 37)에 새롭게 개편한 청소년 단체인 원화(源花)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 부족국가 시대부터 집단적, 조직적으로 단체를 이루어 성(城)을 쌓거나, 무예를 연마하는 등의 호국 활동을 해온 단체가 존재했다.³⁴⁾ 고대 마한에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중심부에 소도라는 성역을 두고 부족의 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동시에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 무예를 연마하는 청소년 단체가 존재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대전시(大戰時)에 무예와 사냥 등을 통하여 무예집단인 조의선인(皂衣先人)을 선발하여 고구려의 국가 방위력을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화랑도는 신라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집단이 아니라 고대사회에서부터 호국 사상을 토대로 유지되어 오는 청소년 단체에 기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시 공동체 사회 때부터 신라에는 촌락 내부에 연령별 청소년 단체가 존재하였다. 신라는 주변의 소국들을 차례로 정복해 마침내 6세기 초에 이르러 경상도 일대를 차지하는 고대국가로 성장하고 문물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선발이 필요해졌다. 또한, 삼국 간의 항쟁이 격화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³⁵⁾ 이에 576년(진흥왕 37) 봄에 기존의 청소년 단체를 새롭게 개편하여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라는 두 여성을 원화(源花)로 삼아 300여

34) 송양섭. "화랑도(花郎徒) 교육에 관한 연구." 人文社會教育研究 8.- (2005): 75-94.

35)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권 진흥왕 37년(576)

명의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효도, 우애, 충성, 신의 등을 가르치며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준정과 남모가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고 질투한 나머지 결국 준정이 남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독한 술을 억지로 권해 취하게 한 다음 강물에 던져 죽게 하였다. 이 일이 드러나자, 준정은 사형되었고 그 무리가 흩어지자, 원화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다. 삼국 간의 항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능한 인재 양성과 군대를 보충할 병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였다.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진흥왕 때에 원화 제도를 개편하여 귀족 출신의 남성들을 뽑아 화랑(花郎)을 조직하여 그 역할을 계승하였다. 화랑도의 제정 시기에 관하여는 『삼국사기』 사다함전에서 진흥왕 23년, 사다함이 화랑으로 활약한 기록이 있어 일반적으로 진흥왕 23년 이전에 화랑도를 설치하였다고 본다.

2. 화랑도의 조직

화랑도(花郎徒)는 지도자인 화랑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낭도로 구성된 청소년 단체이다. 화랑도는 한 시대에 하나의 집단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진평왕 때에는 7개 이상의 화랑도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36)삼국유사를 볼 때 왕이 임명하여 화랑들을 총괄하는 국선(國仙)이 존재하였다고는 하나, 37)다른 사료에서는 화랑 또는 국선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국선은 화랑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라는 해석이 있어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다. 먼저 화랑도의 중심인물인 화랑(花郎)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신라 전기에 걸쳐 200여명 정도가 존재하였으며, 대개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8)화랑은 화랑도의 중심인물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믿음직하며, 사교성이 풍부한 진골귀족 가운데서 낭도의 추대를 받아 선정되었다. 진골귀족의 자제가 화랑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화랑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계급적 지위, 학문, 교양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낭도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1인의 화랑 아래에 7~800명 내지 1,000여명의 낭도가 존재하였다. 낭도는 진골귀족의 자제와 하급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낭도들 가운데는 승려의 신분으로 활동한 몇몇 승려낭도(僧侶噴徒)가 존재하였다. 39)승려낭도의 경우 화랑도가 만들어진 다음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화랑도에 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생활함

36) “여러 해가 지난 후, 왕은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시 영을 내려 양가의 남자 중 덕행이 있는 자를 뽑고 그 명칭을 고쳐 화랑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설원랑(薛原郎)을 받들어 국선을 삼았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였다. 그래서 명주(溟州)에 비석을 세웠다.” 『삼국유사』 제3권 탐상 제4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37) “왕은 나라를 일으키려면 풍월도를 먼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금 영을 내려 귀인과 양가의 자제 중에서 얼굴이 아름답고 덕행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분장을 시켜 화랑 또는 국선이라 하였다. (花郎亦曰國仙)” 『동사강목』 진흥왕편

38) “시인(時人)들이 사다함에게 청하여 화랑으로 받들으로써 부득이하게 화랑이 되었는데, 그 무리가 무려 1천명으로 모두의 환심을 얻었다.” 『삼국사기』 사다함전

39) 조범환. (2012). 신라 화랑도와 승려. 서강인문논총, 33, 179-214.

으로써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승려들이 낭도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나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 것이다. 진평왕대부터는 도리어 화랑들이 주도하여 당시 명망 높은 승려들, 특히 승려들 가운데서 중국에 유학하였거나 학문적 지식이 높은 이들을 초빙하여 낭도들 교육에 힘을 쏟았다. 이는 다른 무리의 화랑도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무리를 이끄는 화랑이 노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대 말부터 화랑도에서 승려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국학(國學)이 발달하면서 불교의 지식 전수와 관련하여 승려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 하대에 이르러 왕위쟁탈전에 화랑도가 참여하게 되면서 승려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꺼려하여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 화랑도의 교육과 활동

신라의 화랑도(花郎徒) 교육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조직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함양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도적 인물과 충신, 그리고 용맹스러운 병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은 6세기 전반기에 신라가 팽창하면서 고구려, 백제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자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더욱 커진 데 있다.

화랑도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을까? 『삼국사기』에서는 화랑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서로 도의를 닦고, 혹은 서로 노래와 음악으로 즐겁게 하고, 명산과 대천을 돌아다니어 멀리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이러한 기록을 통해 화랑도는 집단적 공동체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40)도의(道義)를 연마하는 실천적인 교육 방법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랑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신라에서는 통상 3년을 하나의 서약·수련·의무 이행 기간으로 잡았는데, 대표적인 화랑인 김유신(金庾信)의 수련 기간 역시 3년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화랑도의 수련 기간 역시 3년으로 본다.

화랑도의 화랑이 누구인가에 따라 각기 익혔던 내용이 달랐지만, 화랑도의 교육은 첫째, **종교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고대국가에서는 유교, 불교 등 각 종교의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백성들을 통합하려고 했던 만큼,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교육에 종교 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었다. 화랑도의 낭도 중 승려낭도가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화랑도의 불교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화랑은 유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당시 화랑들은 『시(詩)』, 『상서(尙書)』, 『예(禮)』, 『춘추(春秋)』 등 경서를 중심으로 유교 사상을 학습하였다. 또한, 국가의 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화랑도 교육은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유불선 3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서도야(情緒陶冶)**를 중시했다. 즉 가무, 음악, 시가 등을 즐기으로써 정서를

40) 불교 용어로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마음을 뜻한다.

순화한 것이다. 41)『삼국사기』, 『삼국유사』, 『동사강목』은 화랑도에서 음악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향가를 창작하고 부르는 활동과 거문고·옥적(玉笛)·피리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 음악과 관련된 경전인 「악기(樂記)」와 『시경(詩經)』을 습득하는 활동으로 음악교육이 구성되었다. 화랑도는 두 경전을 읽으며 예악사상과 음악의 특성을 배우고, 시가를 익히며 음악을 통해 기쁨을 느꼈고, 음악을 함께 즐기며 우정을 나눴다. 또한, 향가를 창작함으로써 서로를 향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 화랑도의 음악 교육은 단순히 그들의 정서도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왕의 명령을 받아 국가의 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행사에 동원되어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는 향가를 지어 불렀는데, 이러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무, 음악, 시가 등을 익히게 된 것이다.

셋째로는 **유오산수(遊娛山水)**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화랑도는 처음에는 향토인 경주를 중심으로 다녔으나, 신라의 영토확장에 따라 지리산 일대, 백령도, 명주, 금란굴, 총석정, 삼일포, 영랑호, 선유담, 운송정, 일송정, 문수사, 삼화사, 경포대, 오대산 등 명승지를 찾아다니면서 지리를 익힘으로 국토(國土愛)애를 기르고 심신을 단련하였다.



▲ **울주 천전리 암각화** 울주 천전리에 있는 바위그림 유적으로, 선사시대 바위그림뿐 아니라 신라 화랑의 글씨도 남아있다. 화랑들은 산천(山川)을 유람하며 심신을 수련하였는데, 이곳도 그러한 장소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외적의 침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군사훈련**을 통해 무예를 연마하였다. 어떻게 무예를 연마하였는지 사료에 자세히 드러난 바가 없으나 삼국사기에 나타난 화랑 김흠운(金欽運)이 검을 들고 백제군과 싸우다 전사한 기록을 볼 때 검이 화랑들의 주요 무기 중 하나였으며, 화랑도가 검술 수련에 노력하고 있었음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화랑들의 전장에서의 모습을 볼 때 승마와 궁술은 기본으로 익혔음을 알 수 있다. 화랑도는 전장에서 많은 활약을 했는데 562년(진흥왕 23)에 15세의 어린 나이로 화랑이 된 사다함은 이사부가 대가야를 정벌할 때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적군의 성문을 기습하여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왕에게서 밭과 가야인 포로 300여 명을 노비로 하사받았으나 모두 놓아주었으며, 밭마저 자

41) 김사랑. "화랑도 음악교육의 특성."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신의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 660년에 김유신은 백제의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를 황산에서 물리치고 당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함께 647년에 일어난 42)비담의 난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화랑도는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국내의 반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무예를 연마하였다.

(1) 화랑도의 이념 - 세속오계(世俗五戒)

600년(진평왕 22)에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귀산(貴山)과 추향(籌項)이라는 두 화랑이 있었다. 이들은 바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때마침 승려 원광(圓光)이 수나라에서 부처의 진리를 구하고 귀국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귀산과 추향은 원광을 찾아가 일생을 두고 경계할 금언을 청하자 원광이 이들에게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 등의 다섯 가지 계율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을 세속오계(世俗五戒)라고 한다. 세속오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군이충(事君以忠):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어야 한다.

사친이효(事親以孝): 효로써 아버지를 섬기어야 한다.

교우이신(交友以信):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한다.

임전무퇴(臨戰無退): 전쟁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살생유택(殺生有擇):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

다섯 가지 계율 중에서 특별히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항목은 바로 충(忠)과 신(信)이었다. 화랑도가 제정된 6세기 중반부터 삼국통일을 이루는 7세기 중반까지의 1세기 동안이 신라 역사상 유례없는 국난기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숭상되는 도의는 바로 충과 신이었기 때문이다. 화랑들이 세속오계를 어떻게 여겼는지는 아래 일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유신은 672년(문무왕 12)에 그의 아들 원술(元述)이 석문에서 벌어진 신라와 당 사이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자, 왕명을 욕되게 하고 43)가훈(家訓)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그를 죽일 것을 왕에게 탄원하였다. 비록 원술은 왕의 비호로 목숨을 구했으나, 아버지를 볼 수 없었으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를 만나려 했으나 끝내 어머니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사다함은 17세가 되던 해에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한 무관랑이 병들어 죽자, 크게 슬퍼하며 7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하다가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였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김유신이 그를 구하기 위해 적지로 간 것도 친우와 죽음을 함께 하기로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위 같은 예를 통하여 화랑도가 약속과 신의를 얼마나 중시하였는지 또한,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을 발휘한 예

42) 647년, 상대등 비담이 여주불능선리(女主不能善理) : ‘여왕은 선정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일으킨 난

43) 임전무퇴(臨戰無退): 전쟁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도 있다. 신라는 연패로 인해 사기가 꺾여있던 상황에서 화랑 관창은 적에게 물러설 수 없다며 홀로 말을 타고 백제군의 진영으로 갔다. 백제의 장수인 계백은 관창이 너무 어렸기에 죽이지 않고 되돌려 보냈지만, 관창은 또다시 계백에게 찾아가 “나를 죽이라”며 호통을 쳤다. 계백은 관창을 죽이고 목을 말에 묶어 신라군에게 보내자, 신라군은 관창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세속오계는 화랑이 지켜야 했던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화랑들이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도 함께 갖추므로 인해 화랑도가 크게 발전하고 삼국통일의 기초를 이룩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불어 세속오계에서 충효의 덕목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을 모두 강조하는 것으로 당시 화랑도가 하나의 종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상을 이해한 것을 보여준다.

4. 화랑도의 변천 및 역사적 의의

화랑도는 진흥왕 이후 무열왕, 문무왕에 이르는 동안 가장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였으나 681년(신문왕 1), 44)김흠돌의 난에 일부 화랑들이 참여하면서 신문왕 때 잠시 화랑 제도가 폐지되었고, 그다음 해에 국학이 설치되면서 화랑도는 인재 양성의 기능은 약화되고 가무, 음악, 시가 등의 예악을 즐기는 놀이의 기능만 남게 되며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화랑도가 활동하던 시기는 신라의 골품제가 확립되어 확대되던 때였다. 이와 같은 신분 계층 사회에서는 여러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랑도는 진골귀족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구성원으로 하였기에 골품제 사회에서 신분 계층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데 이바지 하였다. 화랑도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었지만, 화랑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낭도들이 진골 귀족의 자제 중에서 직접 화랑을 선발하였다. 이는 화랑도가 골품제도와 같이 혈연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혈연주의를 초월하여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들은 세속오계와 같은 이념과 여러 교육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조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국학 설치 이전까지는 화랑도를 통해 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한 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나라가 안정을 찾은 이후에도 반란을 진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

III. 결 론

화랑도(花郎徒)는 지도자인 화랑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낭도와 승려낭도로 구성된 신라의 청소년 단체로서 6세기 진흥왕 때에 신라가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고 삼국

44)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자 김유신의 조카이며 사위였다. 김흠돌은 신문왕이 즉위할 때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군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반군이 격파되며 김흠돌의 난은 실패로 끝난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귀족들을 정리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전제왕권을 시전한다.

간의 항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원화(源花)제도를 개편하며 만들어졌다. 지도자인 화랑은 진골귀족 출신 가운데서 낭도들의 추대를 받아 선발되었지만, 그들을 따르는 낭도들은 계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랑도는 신분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화랑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청소년 민간단체를 진흥왕 때에 국가적 조직으로 편성하였기에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기 화랑이 누구인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랐지만, 원광의 세속오계(世俗五戒) 이념을 바탕으로 종교교육, 정서도야, 유오산수,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불교나 유교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며 승려 낭도와의 공동체 생활, 경서 교육을 통해 학문을 익혀나갔다. 국가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왕의 명령을 받아, 제의행사에 동원되어 향가를 통해 국가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고 국내의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지리를 익히고 국토애를 기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무예를 연마하는 실천적인 교육 방법을 행하였다. 이 같은 교육은 가야국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운 사다함, 황산벌 전투의 관창과 김유신, 김유신과 함께 반란을 진압한 김춘추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었다. 화랑도의 영향력은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그들은 의리와 협조를 중시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화랑도는 약소국이었던 신라를 삼국 통일을 이루어낸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였으나, 신문왕 대에 김흠돌의 난에 일부 화랑이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화랑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랑도가 다시 조직되었지만, 국학이 설치됨에 따라 점차 화랑도의 인재 양성 기능은 약화되고 놀이의 기능만 남게 되며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화랑도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도의를 연마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업적을 남긴 청소년 단체이다. 신라의 국력 강화에 이바지했던 젊은 화랑들을 기억하며 단순히 화랑이 그 이름처럼 미모의 남성들을 모아둔 집단이라는 오해가 더 쌓이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김권택. (2011). 「신라 화랑의 기원에 대한 제 해석」. 무예연구, 1-15.
2. 조범환. (2012). 「신라 화랑도와 승려」. 서강인문논총, 179-214.
3. 임준희. (1990). 「신라의 화랑도 교육」. 고시계, 327-329.
4. 송양섭. (2005). 「화랑도(花郎徒) 교육에 관한 연구」 人文社會教育研究, 75-94.
5. 최현. (1991). 「화랑도 교육이념과 수련활동에 관한 재조명」. 한국청소년연구, 153-163.
6. 김정, (1990), 「화랑도(花郎道)와 세속오계(世俗五戒)」, 『정신문화연구』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 김사랑. (2020), 「화랑도 음악교육의 특성」,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8. 김태형 (2005), 「화랑도의 체육활동과 체육사상사적 의의」,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9. 박남수,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 2013, 주류성출판사
10. 『동사강목』
11. 『삼국사기(三國史記)』
12. 『삼국유사(三國遺事)』
13. 『신라국기(新羅國記)』

참고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랑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4589>